

경기도 광주, 다한영농조합법인
계란소비 홍보행사 실시



▲계란판매 및 시식행사가 경기도 광주 시민의날 행사에 즈음하여 공설운동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이만형 조합장(우)과 최정원 축정계장(좌)

경기도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젊은 채란 경영인들의 모임인 다한영농조합법인(조합장 이만형)은 지난 9월 28일 광주시 주최로 펼쳐진 시민의 날 행사에서 계란 소비홍보 행사에 나섰다. 7회째 맞이하는 광주시민의날 행사는 군악대 퍼레이드, 풍물놀이패 한마당, 태권도 시범, 스포츠 댄스, 패리글라이딩, 특공무술, 고공강하 시범이 있었으며, 각 마을별로 다양한 운동별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광주시는 이날 축산물중 유일하게 계란 소비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계란시식회, 계란염가 판매, 계란까지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고 계란요리책자 등 홍보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계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10명씩 나누어 실시한 계란까지 대회에는 가장 빨리 깨끗하게 깬 사람에게 다한영농조합법인의 고유브랜드인 '2050' 계란을 선물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다한은 시와 연계하여 광주시의 농축산물 브랜드인 '자연채'의 이미지를 알리고 신선한 계란을 시민들에게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계란자판기 10여대를 설치하여 공급할 계획을 갖고 업무추진에 들어갔다. 다한영농조합 회원은 총 12명으로 전체 사육수수가 8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료공동구매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계란을 빨리, 그리고 예쁘게 까기 대회가 이벤트로 펼쳐졌다.



▲계란까기 우승자에게는 계란이 한 박스



▲계란 소비촉진은 우리들에게 맡겨라!(다한조합원의 부인들)



▲계란 염가판매 현장



▲내가 바로 계란홍보대사 (다한 회원인 오한성 사장)



▲광주시 조역동 시장(우측 2번째)이 행사장을 친히 방문, 행사에 동참하였다 (이만형 조합장 좌측 3번째).

▶삶은 계란 무료시식회



경기도 안성 육계, 산란계 지부
바우덕이 축제와 함께한 양계산물 홍보 현장



▲바우덕이 축제에 즈음하여 안성 육계, 산란계 지부가 계란소비 홍보행사에 적극 나섰다.



▲안성육계지부 회원들이 함께 참여
▼안성산란계지부 회원들이 함께 참여



안성 바우덕이 축제가 안성천을 무대로 펼쳐져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 안성 육계지부(지부장 김명호)와 산란계지부(지부장 한기석)는 지난 10월 3~7일 5일간에 걸쳐 안성천 강변공원에서 개최한 2007 바우덕이 축제에 참가하여 닭고기와 계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행사기간 동안 닭고기 및 계란 시식 및 판매를 통해 양계산물 우수성을 맘껏 뽐냈다. 특히, 회원들이 직접 튀겨낸 닭고기는 이 자리를 찾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바우덕이 축제가 열리는 안성은 조선시대 남사당의 발상지이자 총 본산지로 남사당 전통문화와 바우덕이의 예술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2001년도부터 해마다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바우덕이(1848~1870)는 5세의 나이에 안성 남사당패에 맡겨졌는데 뛰어난 기량과 스타성을 인정받아 15세 나이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꼭두쇠(우두머리)가 되었다. 고종 2년(1865년)에는 흥선대원군으로부터 당상관 정3품의 관직에 상당하는 옥관자를 하사받기도 하였으나 23세의 옥같은 나이에 폐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바우덕이는 비천한 남사당의 신분을 뛰어넘은 조선을 빛낸 여성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명호 안성육계지부장(좌), 한기석 안성산란계지부장(우)



▲농장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접시돌리기 행사와 바우덕이 축제의 꽃인 줄타기 공연 등

◀바우덕이 축제가 안선천 강변공원에서 펼쳐졌다.



여주육계지부

제9회 여주진상명품전에서 닭고기 소비홍보 활동

여주육계지부(지부장 이홍규)는 지난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여주 신록사관광지에서 개최한 제 9회 여주진상명품전에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닭고기 무료시식 및 할인판매 행사를 가졌다.

진상명품전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진상미와 밤고구마의 고장인 경기도 여주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각종 경연대회, 체험마당,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졌고 닭고기 시식 및 판매 등 테마별 판매광장이 마련되어 수많은 역사적 문화와 맛과 품질, 명성이 뛰어난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보고 느끼며 간직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제9회 여주진상명품전이 신록사 관광지에서 개최되었다.



▲이홍규 지부장



▲행사장에 모인 회원들



◀왕과 비의 고장답게 왕과 왕비 체험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상) 여주육계지부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닭고기 무료시식과 판매를 통해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렸다.(하)